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산업부·사회부  
발 신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담당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010-4706-7097,  
[min@pspd.org](mailto:min@pspd.org) / 구철회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010-7760-1760)  
제 목 [보도자료] 시민 기만하는 쿠팡 탈퇴, 쿠팡 쿠폰 거부 선언 기자회견  
날 짜 2026. 1. 15. (총 4 쪽)

## 보 도 자 료

### 시민 기만하는 쿠팡 탈퇴, 쿠팡 쿠폰 거부 선언 기자회견

15일부터 쿠팡 할인 쿠폰 적용 시작, 생색내기 쿠폰에 모멸감 느껴  
원치 않아도 쿠폰 자동적용, 15일 이후 탈퇴자는 쿠폰 이용 불가  
사태 해결될 때까지 쿠팡 탈퇴·쿠폰 거부 선언 온라인 캠페인 돌입  
**일시·장소 : 1월 15일(목) 오전11시, 쿠팡 본사 앞 (잠실역 7번 출구  
방향)**

1. 135개 노동, 중소상인, 종교계,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오늘(1/15)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 사태가 해결 될 때까지 쿠팡을 탈퇴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쿠팡 할인 쿠폰을 거부할 것을 선언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탈퇴와 쿠폰 거부 선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링크](#))를 통해 기만적인 쿠팡 5천원 쿠폰을 거부하는 온라인 시민 선언에 함께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도 쿠팡의 피해자이자 소비자”라며, “노동자 과로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외압, 불법적인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작성, 산재 은폐 등 쿠팡의 악행은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소비자 개인정보만 유출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다”며 “무려 3,370만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실상은 5천원에 불과한 기만적인 할인 쿠폰으로 해결하려 한다니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쿠팡은 반성은커녕 미국 의회 로비를 벌이고 있고, 13일 열린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억지를 부렸다”며,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중소상인·자영업자도 쿠팡의 파트너이자 경쟁자이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라며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과도한 수수료와 최대 40일이나 걸리는 긴 정산주기, 정산대금으로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대출해주기, 쿠팡의 우수상품 PB 배끼기, 잘 팔리는 상품 집매입으로 강요하기 등만 봐도 쿠팡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쿠팡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자영업자들부터도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탈팡하고 5천원 할인 쿠폰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이로 인해 입점업체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쿠팡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한상총련에 가입된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탈팡을 인증한 시민들께 할인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시경 스님은 “쿠팡의 생명 무시, 노동 탄압, 국민 기만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쿠팡 탈퇴, 기만적인 할인 쿠폰 거부 선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시경 스님은 “할인 쿠폰을 쓰는 것은 단순히 편리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미국 기업 쿠팡에게 우리의 자존심을 내던지는 일”이라며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도 어차피 한국 시민들은 탈팡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쿠팡에게 족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경 스님은 “쿠팡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시민들이 쿠팡을 탈퇴하고 쿠폰 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자 과로사 문제, 중소상인 갑질문제, 소비자 개인정보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종교인들도 쿠팡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5. 소비자시민들을 대변해 발언을 맡은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왔지만 쿠팡의 이번 할인 쿠폰은 보상이 아니라 국민기만, 매출 향상을 위한 꼼수”라며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쿠폰 이용 조건만 봐도 본인들은 단 하나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비판했습니다. 양 본부장은 “할인 쿠폰을 쓰려면 이미 탈퇴한 분들도 쿠팡에 다시 가입하거나 쿠팡을 계속 써야만 할 뿐 아니라, 사실상 쿠폰에 소비자들이 돈을 더 얹어야 하는 구조”라며 “3개월의 사용기간, 포장주문에는 사용불가, 차액환불 불가 등 이런 조건을 거는 게 보상이 맞냐”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이후로 탈퇴하시는 분들에게는 쿠폰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탈팡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가로막고, 쿠폰 사용을 원치 않는 소비자들에게도 본인이 직접 장바구니 화면에 들어가서 일일이 ‘쿠폰적용 해제’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쿠폰이 이용되도록 해서, 마치 많은 소비자들이 쿠팡의 보상안에 만족하고 수용한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쿠팡의 이러한 쿠폰 자동적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쿠팡을 하루빨리 영업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기만적인 쿠팡 5천원 쿠폰, 거부합니다!” 온라인 시민선언 링크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기만적인 쿠팡 5천원 할인 쿠폰 거부한다”  
노동자·중소상인·종교계·정당·소비자·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년 1월 15일(목) 오전11시 / 쿠팡 본사 앞(잠실역 7번 출구 방향)
- 주최 :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 진행순서
  - 발언1. [노동조합]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2. [중소상인]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발언3. [종교계] 시경 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4. [소비자시민단체]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퍼포먼스 : 단체로 시민 기만하는 쿠팡 5천원 할인쿠폰 찢기
- 문의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010-4706-7097, 구철회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010-7760-1760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연명단체 (135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국회의원, 전국민중행동,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사)김용균재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권리찾기유니온, 노동당, the삶,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서교인문사회연구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의당,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쿠팡대책위원회 법률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기본소득당,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진보당,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일과 건강,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촛불문화연대, 충북진보연대(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대전민예총,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광주 민중의 집,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노원여성회, 녹색연합, 대전민중의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 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대전청년회, 대전총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총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약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서울여성회, 성북지회,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양심과 인권-나무, 영등포여성회, 윤종오 국회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전국민중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택배노동조합, 진보당 대전시당, 참여연대,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유통분과(농협유통노조, 농협하나로유통노조, 동원F&B노조, 동화청과노조, 마트산업노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사천휴게소노조, 서비스일반노조, 강동수산지회·구리청과지회·서부청과지회·롯데면세점지회·롯데백화점지회·롯데GFR지회, 수협유통노조, 엘카코리아노조, 홈플러스일반노조, 에브리데이리테일노조, 이랜드노조, 한국암웨이노조, 한화갤러리아노조, 현대백화점노조, LVMH노조)

▣ 첨부자료2. “기만적인 쿠팡 5천원 쿠폰, 거부합니다!” 온라인 시민선언 링크  
(참여링크 : <https://campaigns.do/campaigns/1767>)

